

“
사람을 사랑으로 진료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향의 길입니다!
”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VOL. 93

2026
01
02

“
순천향은 새해에도
‘정직한 용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2026,
‘인간사랑’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SCH

Editor_백승주

새해가 시작되면 병원은 늘 더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은 ‘아프다’는 사실보다 ‘혹시’라는 두려움을 먼저 안고 온다는 점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순천향은 의술과 시스템을 넘어사람을 향하는 마음의 태도를 ‘따뜻’하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순천향은 1974년, ‘하늘 뜻 받들어 인술을 펼쳐가는 고향마을’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사랑·생명 존중이라는 설립 정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인 1호로서의 자부심은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교일 이사장은 ‘따뜻한 병원의 초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힘은 구성원의 열정과 헌신, 후원자의 사랑, 환자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의 각오는 결국 ‘초심’에서 출발하지만, ‘성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초심을 미루느냐, ‘초심’을 기준으로 바쁨을 재배치하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큰 순천향,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순천향의 여망은 문장으로서의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어야 합니다.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비전과 메시지가 순천향인에게 분명한 방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론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책임이 오늘 순천향인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순천향인에게 2026년은 ‘인간사랑’은 슬로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환자 앞에서, 동료 앞에서, 지역사회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 결정을 반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 01+02 VOL. 93

발행일 2026년 01월 19일

통권 93호

발행인 이정재(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이상원, 안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31

연락처 02-710-3165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애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표지설명

순천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환우들과 가족여러분 그리고 순천향인 모두에게 '정직한 용기'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06

NEW YEAR'S MESSAGE_

10

FOCUS

순천향의대, 의학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14

LOVE

최고의 치료는 환자를 생각하는 진심과
그리고 신뢰



16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12

- 서석조, 어렵고 까다로운

미국 유학 자격 심사 규정 통과하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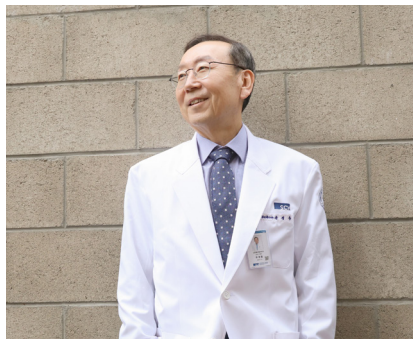
DOCTOR

심질환 수술 최고 권위자 유경중 교수,

순천향대서울병원 합류

- 유경중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22

VISIT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직 환자를 위해~

-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장센터



26

WITH

기업 성장과 함께 진정한 나눔경영 실천

- 박종신 (주)아이엘 회장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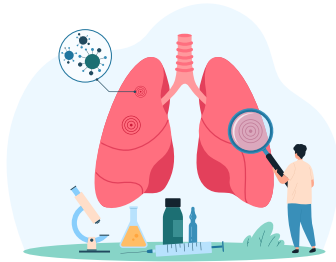
ISSUE

-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정재 교수, 서울병원장 이성진 교수 취임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사회·경제적 수준

낮을수록 입원 위험 크게 증가



30

ISSUE

- 서울 대형 병원 대신 선택한

‘간이식 부녀’에 새 삶 선물

- 동료 구하고 쓰러진 영웅,

극심한 통증에서 해방

32

ISSUE

- 충남 유일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 비뇨의학과 김시현 교수, 로봇수술로

4개 장기(臟器) 동시 절제 성공

34

ISSUE

- 순천향대 구미병원,

2025년 Stroke 심포지엄 개최

- 연말 온기 전한 순천향대 구미병원,

나눔바자회 ·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36

KNOWLEDGE

- 겨울철 심·뇌혈관 건강, 생활 관리가

가장 강력한 예방법

- 슈퍼푸드 달걀, 콜레스테롤 걱정은 이제 그만

38

KNOWLEDGE

‘악력’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낮다

40

KNOWLEDGE

우리아이 성장 방해하는 소아 코골이,

‘크면 관촬’아지는 문제’ 아니다!

42

KNOWLEDGE

당뇨병의 치료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44

BOOK

병원·기업·기관을 위한 언론홍보 실천 전략서

『국가대표 언론홍보 필승전략』

46

EQUIPMENT

순천향대천안병원,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 ‘헬시온’ 운영

48

NEWS

‘정직한 용기’, ‘단단한 협력’으로 순천향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시다!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서교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기대와 설렘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멈춰 서 있을 때보다, 달릴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순천향이라는 거대한 말이 힘차게 질주하는 올 한 해를 꿈꾸어 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의료원과 서울병원은 새 원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해이기에 더욱 기대됩니다. 부천병원과 천안병원도 그동안 쌓아오신 역량과 자긍심으로 순천향의 역사를 견인해 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안개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밝은 등불과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은 바로 현실을 꿰뚫어 보는 '정직한 용기'이며,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단단한 협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는 정직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병원의 현재 역량, 위치 등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덮어 두거나 무조건 잘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은 용기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뛰어나가야 합니다. 옛말에 '궁즉 변, 변즉 통'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도 잘해야 하겠지만 우리병원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 포천지에서 세계 최고의 리더를 뽑았는데 회사 경영자가 아닌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의 테오 앰스타인 단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앰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강아지 훈련도 못 시킨다. 세계 최고의 리더는 말도 안 된다. 최고의 리더는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 맞습니다. 그의 말대로 최고의 찬사는 선수들에게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후에 그가 좀 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의 협력관계가 가장 상을 받을 만했다고 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연구진은 세계를 관통하는 일곱 가지 도덕 규칙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도와라, 소속집단에 충성하라, 호의를 갚아라, 용감하라’ 등이고 이를 꿰뚫는 키워드는 ‘협력’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협력 도덕론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열쇠는 관계입니다. 동료와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 소속감, 함께 해갈 수 있는 믿음이 어려운 일을 헤쳐가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협력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설립자께서 늘 강조하시던 인화와 단결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순천향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함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용기와 함께하는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값진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우리 환자분들도 비로소 웃을 수 있습니다. 순천향 가족 모두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교일

함께 걸어갈 순천향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이정재

순천향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로, 도전과 도약, 그리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뜻처럼 새해를 맞아 순천향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와 함께 중앙의료원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아직은 다소 낯설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순천향이라는 큰 공동체가 지금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더욱 또렷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순천향은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의 순간마다 선택과 결단을 통해 성장해 왔고, 이제 또 한 번의 큰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환경, 달라진 사회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답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장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함께 책임을 지고, 순천향의 방향과 가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재임하며 의료 현장의 치열함과 우리 의료진만의 자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향한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 나가던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병원은 흔들림 없이 중증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본질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순천향다움’은 결국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부속병원이 처한 현실과 과제가 서로 다른 만큼, 중앙의 료원은 획일적인 관리가 아닌 각 병원의 특성과 강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균형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진료·연구·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의료 환경을 통해 순천향이 지켜온 ‘인간사랑’의 철학이 현장의 의료로 더욱 단단히 구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6년은 의료 환경의 변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의료원과 각 병원 모두 새로운 선택과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 그리고 환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순천향 의료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스틴 처칠은 “개선하려면 변화해야 하고, 완벽해지려면 자주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부담을 동반하지만, 필요한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순천향의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라면 피하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도 순천향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가 건강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걸어갈 순천향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이정재



환자가 존중받고,
교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지속 가능한 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이성진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서울병원의 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발전을 이끌어 주신 이정재 전임병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교수님,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병원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낸 병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평가할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병원으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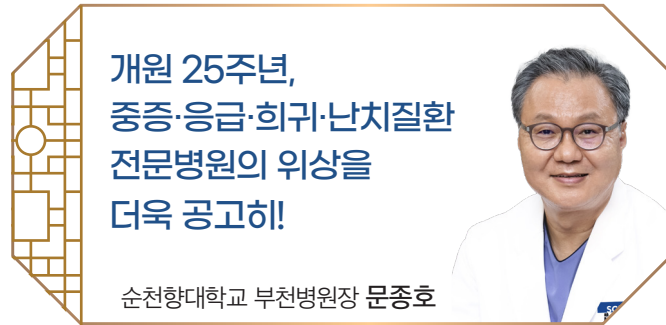
서울병원은 중증과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외형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서울병원이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해로 삼겠습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진료 구조와 역할, 인력과 시스템을 정비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올라서기 위한 체질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3년 후를 목표로 연구 중심병원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병원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인 환자 경험을 ‘환자 존중’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인간사랑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현장의 경험이 병원의 철학과 정책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병원장으로서 현장의 판단과 경험을 존중하며, 환자 존중이라는 가치를 병원의 의사결정과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자 합니다. 서울병원의 미래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이어질 때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이성진



개원 25주년,
중증·응급·희귀·난치질환
전문병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문중호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병원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7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개원 이래 최고 진료 실적을 경신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도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표준화 사망비와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획득해 본원의 진료 역량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본관 내과계 중환자실을 신설해 중환자 병상 비율이 15%를 넘어섰고, 고난도 생체 간이식 성공, 로봇수술 4,000례 돌파, 소화기내과 담도 관련 국내 대학병원 최초 시술 성공 등 지역을 대표하는 중증·응급·희귀·난치질환 전문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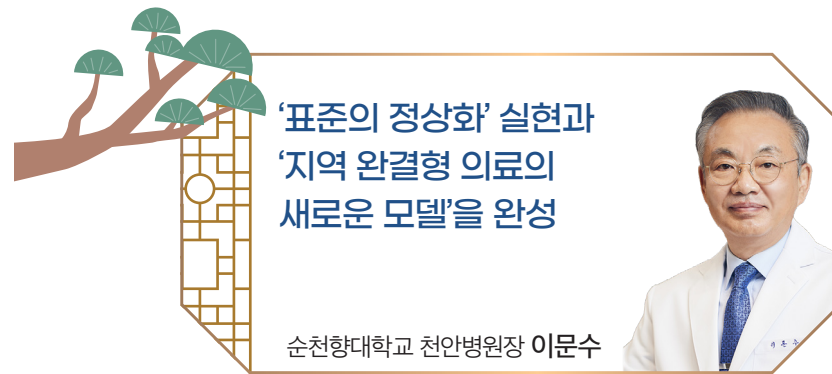
개원 25주년을 맞은 올해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5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인 만큼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1분기 중 입원환자 모니터링 의료 AI 시스템을 일부 병동에 시범 운영하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여러 도전과 과제가 예상되지만, 부천병원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병원의 발전과 환자 안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문중호



‘표준의 정상화’ 실현과
‘지역 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장 이문수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동터 온 새해의 첫 빛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 태양처럼 솟구쳐 오르는 한 해를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천안병원은 오랜 준비 끝에 최첨단 의료장비와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갖춘 새병원을 개원하고 순천향의 새로운 시작이자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출발한 천안병원은 인간사랑의 정신을 계승하여 “순천향은 사랑입니다”라는 우리의 문화를 환자분들과 권역민들에게 나누어드리며 교직원 모두의 마음속 깊이 새겨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천안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병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은 결코 새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왔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본래의 표준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천안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통해 ‘표준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중증환자들이 지역에서 최충치료를 받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직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순천향에 대한 깊은 애정이 오늘의 천안병원을 만들었고 내일의 천안병원을 이끌어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천안병원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순천향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6년 1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장 이문수



환자 중심의 가치를 지키며
변화의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김성호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며 역동적인 기운이 우리 순천향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순천향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구미병원은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환자중심의 가치’가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용기있게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MRI 최신 장비 도입, 대구·경북 지역 유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6회 연속 최우수(S) 등급 획득,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선정 등 의미있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셨고, “구미병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2026년을 맞이하는 구미병원은 더욱 세심히 환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병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태도와 문화 또한 변화의 방향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작게 시작된 변화들이 병원의 흐름이 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순천향 가족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속도를 얻되 깊이를 잃지 않는 병원, 용기를 내되 따뜻함을 잃지 않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걸어주십시오. 구미병원의 변화는 한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김성호



순천향의대, 의학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교육 혁신과 데이터 기반의 연구 역량 확장 동시 견인



지난 2025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두 개의 핵심 외부 사업을 수행하며 교육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 RISE 사업인 「의과대학 혁신 교육 사업」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다. 두 프로젝트는 순천향의대 의학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교육 혁신과 연구 역량의 확장을 동시에 견인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글·사진 순천향의과대학

교육부_RISE 사업 ‘의과대학 혁신 교육 사업’

순천향의과대학의 의학 교육 혁신의 목표는 ▲첫째 미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의료전문가를 양성하며, ▲둘째 학습자 맞춤형·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을 구현하고, ▲셋째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대형 과제로 사업 총괄 단장 백무준 학장(천안병원 외과학), 부단장 박정미 교육부학장(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보직교수와 의학 교육학 교실 겸임 교수를 중심으로 총 11개의 세부 사업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혁신을 추진한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되며, 기초의학 교수, 서울, 부천, 천안병원의 임상교수, 각 학사지원팀, 향설교육혁신센터, 향설교육술기센터, 의과대학생들이 시행 중이다. 의학교육학교실(의학교육학 교수 이단비 외 임상 겸임 교수 10여 명)이 기획·혁신 과제가 순천향대의대 의학교육의 본질적 혁신으로 확장·연결될 수 있도록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과 성과는 향후 병원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의대 교육 혁신 사업을 위해 충남도 RISE, 본교 RISE, 충남도 의사회, 순천향대 의대 동문회 등, 타 의과대학과도 협력(서울대의대, 건양대의대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6년제 학생 맞춤형 교육(학년별 enrichment period, 선택 교과, 임상술기 완전학습 등) ▲의사과학자 교육(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사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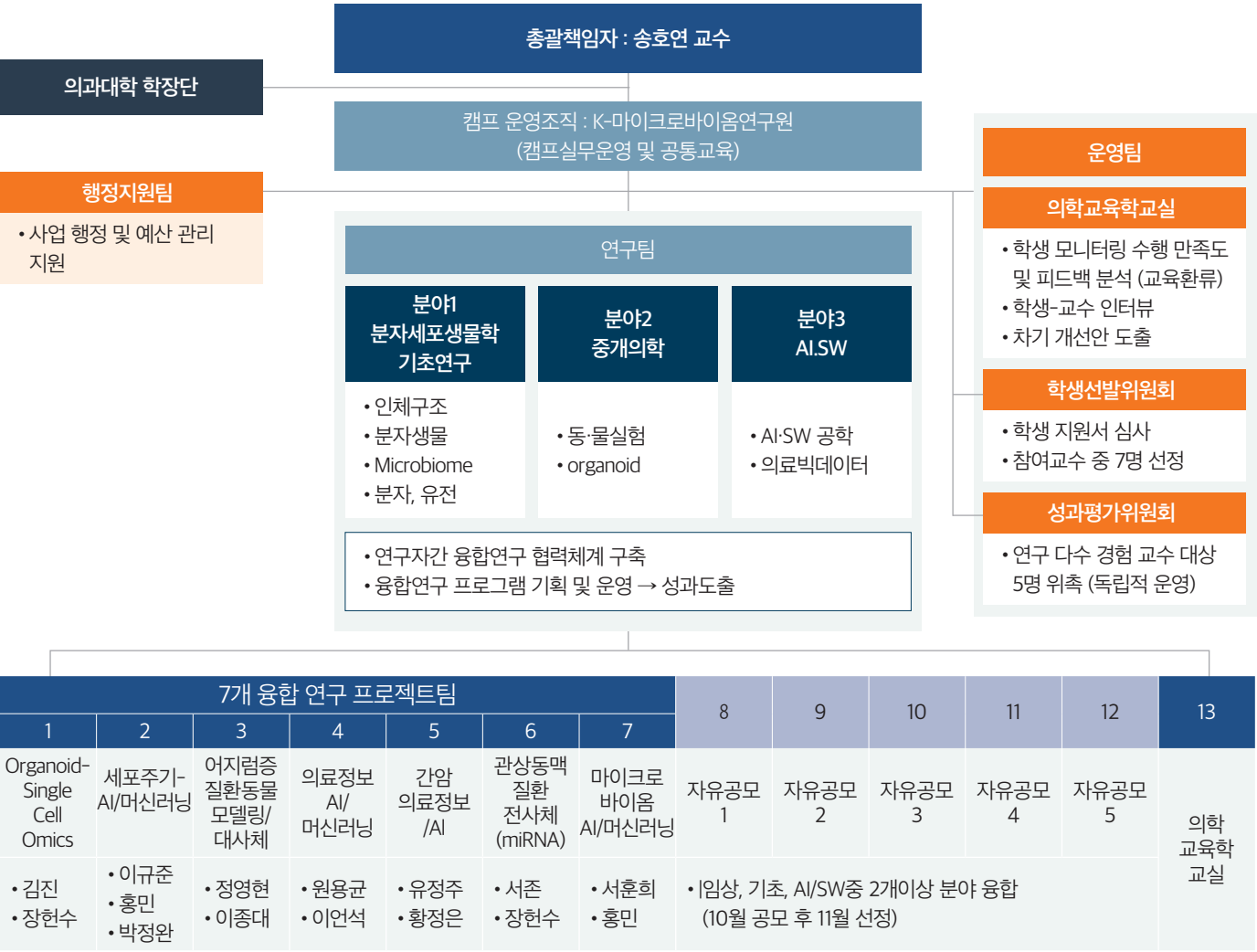
학술대회) ▲증원의대생 대비 우수 동영상 공유 교과 개발(기초 임상 통합 교육, 기초와 임상의 flipped learning개발) ▲문항 은행 구축 및 분석 ▲졸업 및 6년제 학생 포트폴리오 개발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 교과 개발 ▲임상 선택 심화 실습(조기 임상 노출, 임상추론, 학생 AI 교육 콘텐츠, 내과계/외과계 등 복합환자 통합형 실습) ▲디지털 교육 콘텐츠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 ▲지역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지역 1차·공공 의료기관 실습(지역의료원, 지역 1차 의료기관실습, 장기추적통합 임상 실습) ▲입학 면접 의대 평가위원 양성 및 면접 부활 ▲지속가능한 교육 지원 정책 개발(의대 교수 교육업적 평가지표 개발) 등이 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_SCH MED SCIENCE CAMP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으로, RISE 사업 내 ‘의사과학자 교육’ 세부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은 송호연 교수(미생물학교실, MRC 센터장)를 사업 책임자로 하여 연구부 학장, 학생부 학장,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 공동 기획을 하였으며, 사업에 선정되어 2025. 12. 15부터 겨울방학 8주 동안 ‘SCH MED SCIENCE CAMP’에는 의대생 5개 학년 29명의 학생이 총연구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프로젝트 13개 팀에 소속되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본교 의과대학과 다른 과, 타 기관 포함하여 총 20명의 지도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학생 모집, 참여 지도교수 모집 및 학생과 매칭, 참여 학생 대상 공통 실습 교육 신규 개설과 운영은 학생 부학장 박정미 교수, 의학 교육학 교실 이단비 교수, 천안 학사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천안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참여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참석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캠프는 그동안 교실별 연구 프로젝트 진행 방식과 학술대회에 질적 향상과 학생 관리 개선을 위해 ‘1.5주의 기본 연구 실습 집중교육과 6.5주 동안 wet lab·dry lab 기반 융합 연구 과정 중 공통 교육프로그램’ 및 마지막 주 전체 참여팀의 lab 공개 행사를 신설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질적 향상과 몰입형 연구 경험을 제공한다. 최종 발표회는 2월 5일(목), 천안병원 강당에서 진행된다.

순천향대 의대는 2018년부터 의과학 연구 학술 활동에 의대생 30여 명

순천향 8주 의과학자 양성 캠프 주차별 운영계획

공통 이론·실습 교육(1~2주)과 팀별 프로젝트 실습(3~7주), 최종 성과발표 및 Lab 공개행사(8주)로 구성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연구 경험과 성과 공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함.

		월	화	수	목	금
1주차		공통 교육				
	오전	공통 이론1 기본이론교육 실험실 안전	공통 이론2 분자세포생물학	공통 이론3 유전자분석	공통 이론4 단백질 분석	공통 이론5 통계교육 논문작성하기 그래프,표
	오후	공통 실습 1 실험실OT 실습노트작성하기	공통 실습 2	공통 실습 3	공통 실습4	공통 실습 5
2주차		공통 교육, Team Matching Fair			팀별 프로젝트 실습 시작	
	오전	컴퓨터SW이론1	컴퓨터SW이론2	“Team Matching Fair” 교수팀 연구 주제/관심 분야 발표·동영상/PPT	팀별프로젝트 실습	
	오후	공통 실습	공통 실습			
3~7주차		팀별 프로젝트 실습 (1.5~7주: 5.5주간) 5주차: 팀별 실습 중간 점검과 운영팀의 학생 수강 모니터링/불편사항 조사 및 피드백				
8주차		"팀별 Lab 공개 행사"			최종 성과 발표회	교실별 후속 진행 미팅 및 학생 인터뷰 시행(FGI)
		•참가 팀의 Lab을 다른 팀에게 공개하는 행사 •팀 프로젝트 수행 중 사용한 주요 실습기자재 소개, 실험 방법, 결과 도출 까지를 현장학습으로 소개하며 참가자간 질의 응답하는 현장 심층 학습 •1일 오전/오후 2팀씩 하루 4개 팀의 lab 공개 행사 •3일 동안 진행, 복도에 팀별 다과와 간단한 팀 소개 포스터 등 비치하여 축제처럼 진행			•학회형식 진행 •구연/포스터 발표 및 시상 •포상: 우수상 2팀, 장려상 8팀, 격려상 3팀 (140만원~400만원) (평가: 발표 50%, 보고서 50%)	

이 지속적으로 참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질적 개선을 시도하고, 2025년~2030년 글로벌 사업에 선정된 본교와 의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학생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학생 유입 방안’을 마련하여, 순천향만의 연구 친화적·현장 중심 의과학자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의과대학 교육 혁신에 교수님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 ▲아이디어 단계의 제안
- ▲부분적·단기적 참여 등 모두 환영합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시선이 모일 때, 순천향의대 학생들은 더 넓은 진로를 상상하고,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학교육 여정에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학교육학교실 이단비 교수, 주임교수 박정미 교수)

최고의 치료는 환자를 생각하는 진심과 그리고 신뢰

두려웠던 두 번째 허리 수술...절대적 믿음으로 극복



모든 환자는 두려움을 안고 병원에 간다. 몸의 고통보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하는 불안이 더 크다. 환자는 의사의 한마디에 안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사의 말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가 무조건 희망적인 말만 할 수는 없다. 환자 스스로 정확한 상태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솔직한 설명은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인 대응으로 바꾼다. 그리고 자신감과 진심이 담긴 의사의 말은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료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든다. 말 그대로 환자를 ‘춤추게’하는 힘이 된다.

글_ 전진용 사진_ 정지선

황미일 환자(여성, 70대)는 평소 활발하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일상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심하게 넘어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천향대 구미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신경외과 이광수 교수를 만났다. 다행히도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이 교수의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은 환자를 안심시켰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이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치료 과정에서 느껴진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돌봄이 큰 위안이 되었고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황 씨는 큰 어려움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 교수님의 진심과 의료진의 헌신들이 항상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었죠.”

두 번째 불의의 사고, 다시 구미병원을 찾다

여전히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일상을 이어가던 황 씨는 두 번째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젊은이들 못지않은 활동력

은 안타깝게도 또 한 번의 사고로 이어졌다. 또다시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를 겪게 된 것이다.

“처음 허리를 다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거 같았습니다. 고통은 더 심했고 두려움 역시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순천향대 구미병원 이광수 교수님과 의료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처음 다쳤을 때와는 달리 고통과 걱정은 더욱 커졌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아예 허리를 못 쓰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하지만, 이 교수를 만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설명 그리고 수술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교수님과 의료진을 믿고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 살피는 모습...모든 환자가 엄지‘척’

이 교수의 설명과 자신감만큼 수술은 잘 이루어졌다. 다소 까다로운 수술이었지만 환자는 다시금 무리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광수 교수는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 상황과는 달리 두 번째 상황에서는 수술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만큼 쉽지만은 않은 수술이었지만 분명히 잘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위해 어떤 수술이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히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환자의 긍정적인 사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는 모든 면에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 교수는 황미일 환자뿐 아니라 그가 담당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 교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마다 회진을 돈다. 직접 환자들을 살피고 돌보기 위함이다.

이 교수는 “상황이 여의찮을 때도 있지만 매일 직접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다”며 “나를 믿고 온 환자들에게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 교수에 대해 황 씨는 “교수님이 아침에 회진을 돌 때마다 병실의 환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엄지척한다”며 “이처럼 환자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음에, 그리고 본인의 담당이었다는 점에 큰 감사함을 느꼈다”고 화답했다. ■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을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향설서석조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역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 의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견 일환으로 연재한다.

서석조, 어렵고 까다로운 미국 유학 자격 심사 규정 통과하다

서석조가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였는지를 대략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을 보여준다.

‘외국 유학 여행권 교부 신청자 자격 심사 규정’은 유학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보증하는 여러 근거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입증된 사람에게만 여행권을 발급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유학 희망자는 학문적 소양을 증빙할 기초자료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였고, 유학지에서 생계와 학비 문제로 공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이기 위한 자료로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였으며, 유학지에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외부부에서 시행하는 언어 및 상식 시험에 합격해야 하였다. 그뿐 아니라 ‘외국 유학 여행권 교부 신청자 자격 심사 규정’은 학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학할 기관이 정해진 사람에 한해서만 여행권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유학 희망자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미리 입학허가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였다.

서석조는 유학하려는 분야, 즉 의학 분야에서 이미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기 때문에 학업 능력 면에서 고민할 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도, 부유한 집안과 부친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학비, 생활비, 여비, 유학 기간 중 가족의 생계유지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가 해결해야 하였던 문제는 외부부의 시험과 유학처 찾기가었다. 이에 대한 서석조의 언급은 남아 있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사비로 미국에 유학한 의사들의 경험담을 통해 그의 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외부부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시험은 받아쓰기, 번역, 회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국 유학 여행권 교부 신청자 자격 심사 규정’에 따르면 영어시험은 총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 된 신문 잡지의 논설 또는 기사 중 일부를 시험관이 읽어주면 응시자가 그것을 서취(書取), 즉 받아쓰는

것이였다. 두 번째는 받아 쓴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응시자의 회화 실력을 확인하는 구술시험, 네 번째는 영어로 들은 이야기를 요점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였다. 한 응시자의 회고에 따르면, 네 가지 시험 가운데 구술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한다.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가 시험관을 직접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는 형식이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는 통과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유학 희망자들은 별도의 경로로 준비를 해야 하였다. 유학 희망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법은 출판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 중이던 영어회화 교재를 구입하여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인과의 수업을 통해 대화 연습을 하는 것이였다. 이런 시험은 주로 미국인 선교사가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에게 유리하였다. 그에 비해 서석조는 일본식으로 영어 교육을 받아 온 까닭에 회화 시험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석조는 국내에 체류하는 미국인과의 개인적 인맥을 통해 유학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는 누나인 서순자가 근무하던 대구 동산병원에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한 미국인 선교사 로이 스미스(Roy. K. Smith)를 통해 미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스미스는 일제 시기부터 한국에서 활동해 온 미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 의사로, 1911년에 내한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대구, 재령, 평양, 선천 등지로 파견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군정의 의료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1948년 대구 동산병원에 부임하여 1949년까지 원장직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에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군정의 의료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보아 스미스는 한국인 의사들 사이에서 미국 유학이 점차 유행으로 부상하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견지에서 서석조의 유학 상담에 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석조가 품은 미국 유학의 꿈은 미국 정부의 세계 전략 및 대한 정책과 맞물려 현실화되었다. 병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1949년에 발표된 ‘스미스-문트법(Smith-Mundt Act)’을 활용하여 외국인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턴, 레지던트로 채용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Exchange-Visitor Progra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스미스-문트법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서석조의 미국행에 제도적 통로를 제공하였다. 그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병원에 채용되었고, 비이민 방문자로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교환 방문자 비자(혹은 J-비자)를 발급받았다. 그가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었음은 레지던트로서 첫해를 보낸 나이에가라 결핵 요양소의 수련 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수련 증명서 본문의 마지막 문단은 서석조가 미 국무부의 허가에 의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일환인 나이에가라 결핵 요양소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음을 보여준다.

서석조의 미국 유학은 미국 의학에 대한 선망, 선진 학문을 배우려는 호기심, 한국 의학계의 발전에 대한 사명감, 친미적인 엘리트 지도층을 양성하려 한 미국 정부의 대한정책, 그리고 한국인과 본국 유학처를 연결해 준 미국인들의 노력 등이 맞물려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시대적 조건들 가운데 사비 유학을 떠난 서석조에게 특히 더 중요하였던 것은 미국 내 유학처 정보를 제공해 준 미국인과의 인맥이었다. 정부 및 기관 차원의 지원 없이 모든 준비를 혼자서 해야 하였던 상황에서, 미국인과의 인맥이 없었다면 유학할 방법을 아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었을 터였다. 따라서 그의 유학은 비단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일이었다. ■

심질환 수술 최고 권위자 유경중 교수, 순천향대서울병원 합류

1998년 심장 무정지 수술 국내 도입...3천 명 이상의 환자 살려

심장 무정지 수술과 같은 난치성 심장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유경중 교수(전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메이저 종합병원을 뒤로한 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순천향의 정신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이 되는 시점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다.

글_전진용 사진_정지선

유경중 교수는 어린 시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한 가족에게 늘 어둠이 드리워졌다. 8살 차이의 형이 많이 아팠기 때문이다. 지금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편도염과 같은 작은 원인으로 시작하지만,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기에 균을 잡지 못해 심장, 심장판막, 콩팥 등에 옮겨가 염증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형을 보며 유 교수는 훗날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국내 의료 수준이 낮아서 진단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형님이 앓았던 병명이 ‘류머티즘성 열’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땐 병명도 모르는 채 오랜 기간 고생했습니다.” 항상 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을 보며 유 교수는 의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자 마음먹었다. 그 목표는 그대로 실현됐다. 연세대학교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시절에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이

각광받는 시기였습니다. 나도 조금의 고민은 있었지만 결국 어린 시절의 목표와 꿈을 선택했습니다.” 의대 입학 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를 선택했다. 의대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수업을 듣고 한 달 이상 시험 기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유 교수는 힘들다는 것 보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성취감이 더 컸다. “입시를 준비하던 고교 시절보다 더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의 자세,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다

당시 의대는 매우 보수적인 곳이었다. 능력과 상관없이 지연, 혈연 등이 의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교수는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미국에서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연세대세브란스병원으로 온 마취과 교수님은 유 교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심장 마취, 환자 수술 관리 등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교수의 길이 아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하려 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교수 역시 유 교수의 의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증 취득한 이 교수는 환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환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매우 세심하게 상태를 살피고 세밀한 진찰과

유경중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치료를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던 시절이었지만 의사로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환자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의사로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환자만 보는 의사가 되자

젊은 시절 몸담았던 병원에도 많은 유능한 선배 의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유 교수의 생각과는 다른 의사의 모습도 있었다. 환자로부터 별도의 사례금을 받으며 돈을 쫓는 의사 선배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때는 환자들에게 소위 촌지라는 것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병원 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특혜를 주고 사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환자와의 사적인 관계, 사적인 대가는 철저히 피하려 했습니다.”

한 튼실한 중소기업 사장이 유 교수를 찾아왔다. 유 교수의 수술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였다. 그는 고마움으로 유 교수에게 사적으로 금전적 사례를 하려 했다. 유 교수는 손사래를 치며 환자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환자는 다시 유 교수를 찾아 자신의 고

마음을 전하려 했다. 이런 환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유 교수는 환자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 그 대신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그 환자는 제 제안을 받아들여 힘든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유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기부를 시작해 총 5억 원의 금액을 환자 수술을 위해 도왔다. 유 교수는 말했다. “의사는 돈을 많은 버는 직업이 아닌, 환자를 살리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난치성 심장질환 분야 권위자가 되다… 수술 사망률 0.7%로, 세계적 기록 보유

병으로 고통받던 형을 향한 마음으로 의사가 되길 바랐던 유 교수는 결국 모두가 인정하는 심장 무정지 수술 등 최고의 심장질환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유 교수는 심장박동을 유지한 채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심장 무정지 수술을 이미 1998년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연수 후 국내에 도입한 인물이다. 이 수술로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환자 생명을 구했다. 수술 사망률은 0.7%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의 평균치 2~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아픈 사람들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사가 된 것, 그 마음으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좀 더 발전된 기술로 효율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 교수는 고령이나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 만성폐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심장 무정지 수술을 적용해 수술 후 합병증을 현저히 낮추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치료를 시행해 왔다. 또한 연구활동에도 매진해 왔다. 난치성 심장질환 수술과 줄기세포를 통한 심장질환 치료법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박동하는 심장에서 수술하는 관상동맥 우회술’ 교과서도 저술하는 등 의학계에 기여했다.

힘이 닿은 한 단 한명의 생명도 더 살리겠다

가족을 향했던 마음은 환자에 스며들고 오직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어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했다. 이제는 지난해 9월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과 함께 할 결심을 한 이유는 순천향의 정신, 환자를 우선하는 정신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직 메이저 병원으로 평가받지는 못하지만 제가 메이저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천향의 정신과 문화만큼은 그 어떤 메이저 병원보다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심장혈관

관련 외과외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자는 마음은 여전히 현역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 남게 했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제가 순천향에서 외과의사로서 함께 하는 이유는 아직 제가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더 쉬운 길, 더 많은 것을 보장받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순천향과 함께 병원의 발전, 환자의 생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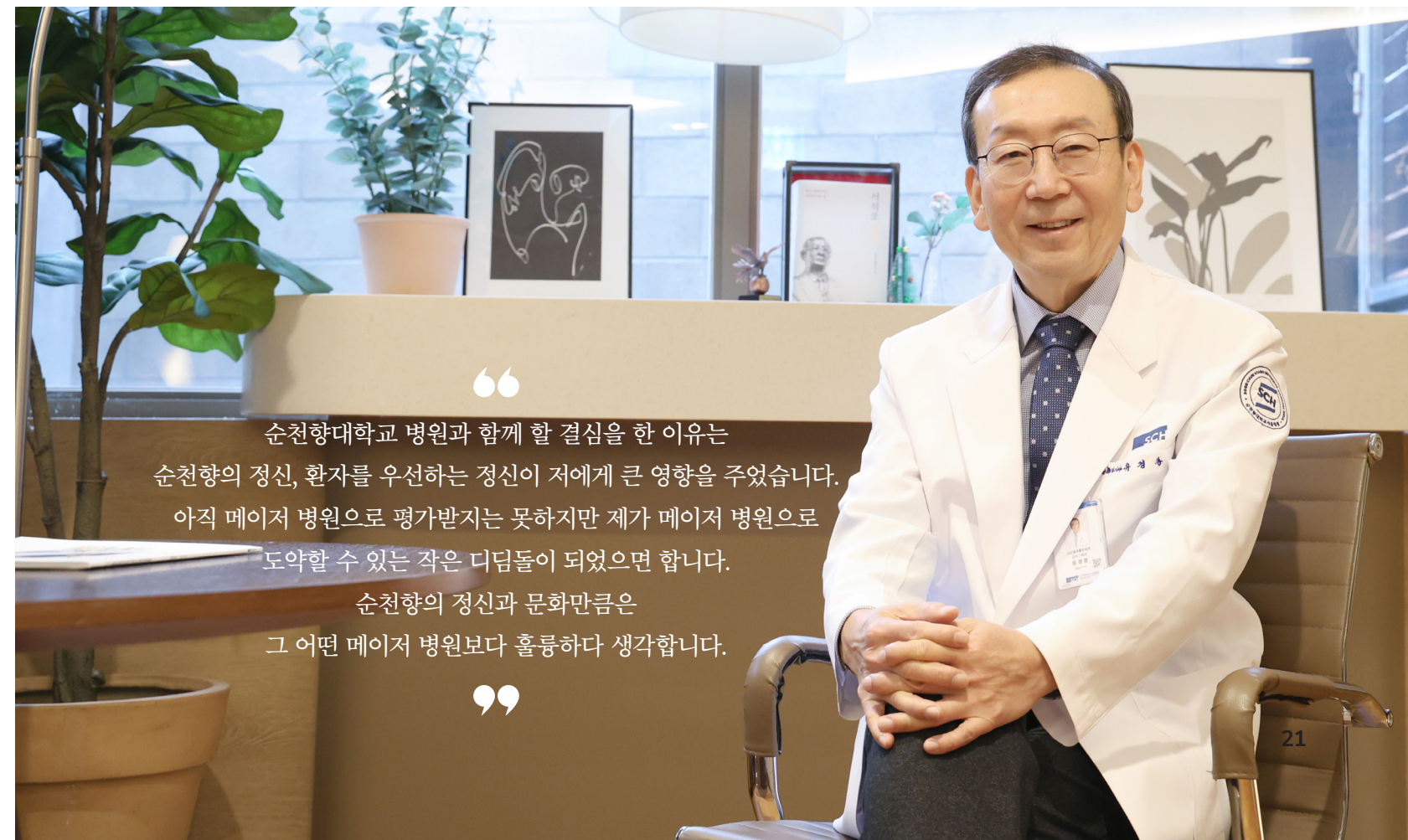
지난해 8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합류한 유 교수는 다음 달인 9월부터 진료와 수술을 시작해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여전히 일선에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의사는 돈을 쫓지 말고 생명을 쫓아야

사실 유 교수는 많은 메이저 병원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이자 역할이었다. 그런 그의 신념과 가장 부합한 병원이 바로 순천향이었다. “메이저 병원들의 경험

과 능력과 설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자를 마치 돈을 벌어주는 업장의 손님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막중한 일입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의사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한 일입니다.” 후배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과거에는 뛰어난 후배들이 의사의 사명감으로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요즘은 너무 쉬운 길만 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돈을 쫓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쫓아야 하는 막중한 직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새롭게 몸담은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 대한 애정도 밝혔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몸담는 동안 더 많은 환자를 살리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메이저 병원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병원으로서의 가치만큼은 순천향의 정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신에 맞는 병원, 의사로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과 함께 할 결심을 한 이유는 순천향의 정신, 환자를 우선하는 정신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직 메이저 병원으로 평가받지는 못하지만 제가 메이저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천향의 정신과 문화만큼은 그 어떤 메이저 병원보다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직 환자를 위해~

매월 2천여 회 혈액투석 시행...최고 전문가들이 최상의 의료 실현



2025년 기준 국내에서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의료계는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빠른 고령화와 함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 전진용 사진. 박미희

증가하는 신장질환 및 투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신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병원 신장센터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의와 숙련된 투석 전문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최신 의료 장비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장센터를 찾는 환자 중 상당수는 말기 신질환 환자로, 이에 따라 부천병원 신장센터는 혈액투석실과 복막투석실을 함께 운영하며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휴일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센터를 운영해 응급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응급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매월 2천여 건 혈액투석...매월 30여 명 환자 복막투석 치료

부천병원 신장센터는 지역 내에서 투석 치료를 가장 활발히 시행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2,000건의 혈액투석이 시행되고 있으며, 복막투석 치료 역시 매월 30여 명의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신장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준다. 증가하는 중증 신질환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인력뿐 아니라 의료 설비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신장센터 내에 37대의 혈액투석 기계를 보유 중이며, 이 중 4대는 혈액 매개 감염성 바이러스 보균 환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소수의 환자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한 운영으로,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중증 급성 신부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기계를 12대까지 확충해, 최근 증

가 추세인 중환자실 신부전 환자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초음파 혈류 측정기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석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식외과, 비뇨의학과 등과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 신장이식 수술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 간호사 교육과 이식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식 수술 과정은 물론, 수술 전후 환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이식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고 전문의 6인과 투석전문 간호사로 구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센터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국, 최수정, 박무용, 유병철, 박거늘, 최운원 교수 등 전문의 6인이 센터 진료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박정희 투석실 팀장을 중심으로 투석 치료에 특화된 전문 간호사들이 체계적인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내과 전공의들 또한 진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석 치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서효희 교육전담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들은 환자 상담과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혈액투석에 필요한 동정맥루 수술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및 일반외과와 협진해 시행하고, 합병증 발생 시에는 영상의학과와 협력해 외래에서 수술 및 시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삽입술 역시 일반외과와 협진해 시행하고 있으며, 1~2일의 짧은 입원으로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

MINI INTERVIEW

“365일 빈틈없는 당직 의료 체계 유지”

박무용 신장내과 교수(신장센터장)

지난 2005년도부터 부천병원과 함께하고 있는 박무용 교수는 2022년부터 신장내과 진료과장과 신장센터장을 맡아왔다. 무엇보다 팀원 간의 화합과 신뢰를 중요시하며 센터를 이끌어 왔다. “올바른 근무 환경이 갖춰져야 비로소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투석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뢰와 화합과 더불어 모든 팀원이 꾸준한 경험을 쌓고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 결국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석 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팀원이 항상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기꺼이 도움을 주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며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신뢰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투석 환자를 돌봐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이 치료받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팀원이 힘든 여건이지만 응급 환자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호전되어 다시 가족의 품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센터 팀원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박 교수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환자의 위급 상황에 대비해 365일 빈틈없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함께 해주는 모든 팀원도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서로를 살피고 응원하며 우리 팀의 가장 큰 자산인 따뜻한 팀워크를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신장센터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곳”

박거늘 신장내과 교수

박거늘 교수는 2020년 부천병원에 입사해 2024년부터 신장내과 전임의로 근무하며 신장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기신부전 환자분들은 주 8~12시간가량을 신장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공간은 환자들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팀원들은 환자분들이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처럼 건강과 안위를 함께 살피야 하는 분들로 여기며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환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하면서도 실력 있는 의사가 되자는 마음으로 진료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항상 환자와의 공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병원은 아플 때 찾는 공간이라, 작은 일도 불편하고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친절함 태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칠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내가 이분이라면 지금 얼마나 힘들까’라고 되묻는 것이 공감하는 마음을 다잡는 힘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천병원 신장센터가 환자 중심의 최고 의료센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진들의 오랜 경험에서 오는 안정감과 최신 시스템의 조화라 설명했다. “개원 초기부터 함께해 온 베테랑 전문 간호 인력이 실력 있는 전문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안정적인 투석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투석 기계와 필터를 도입하여 환자 상태에 맞춘 개별화된 투석 처방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환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서효희 교육 간호사



서효희 간호사는 아버지의 권유와 주변을 돌보는 것이 익숙했던 삶을 돌아보며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워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변화에도 가장 먼저 느끼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역할이라는 점은 저의 성향과 가장 잘 맞았다고 느꼈습니다.”

서 간호사는 25년차 베테랑 간호사다. 그만큼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간호사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투석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환자들과 대화를 통해 많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장센터 교육 간호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 간호사는 교육 간호사라는 역할이 단순한 교육이 아닌, 환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하는 진정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연령, 직업, 가족 환경, 식습관 등이 모두 다르기에 똑같은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와 소통하고 환자를 이해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때론 목이 아프고 목이 쉬기도 한다. 하지만 늘 보람을 느낀다. “진심으로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더 노력할게요’라는 말을 들을 때는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서 간호사는 “부천병원 신장센터의 강점은 단순히 신장질환이 아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함께 하려 하는 점”이라며 “순천향대학병원의 철학처럼 모든 환자들을 한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진심이 환자들에게 전달되기에 더 좋은 의료기관이라 자신한다”고 전했다.

“간호는 전문성과 지속할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 필수”

이설희 투석전문 간호사

이설희 간호사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기에 지금의 간호사라는 역할이 가장 잘 맞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간호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전문성과 더불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간호사의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간호사는 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까지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환자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전해야 한다는 점에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 시대가 변해도 간호사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간호사는 투석전문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시간의 투석 시간 동안 환자가 최대한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시술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말했다. “투석환자들은 투석전에는 부종과 호흡곤란으로 힘들고 투석 과정도 그 자체가 힘들고 고된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간호사는 “급변하는 투석 치료 환경에 맞추기 위해 지침과 임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신장센터 전체의 간호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성장과 함께 진정한 나눔경영 실천

순천향발전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10년간 10억 기부 약속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성장’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기업은 흔치 않다. 이런 가운데 건설시공 기업 (주)아이엘이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한 사회환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주)아이엘은 단순한 실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사회 환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실한 기업’을 넘어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행보의 중심에는 박종신 회장이 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강조해 온 박 회장의 경영 철학이 (주)아이엘의 ESG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견인하고 있다.

글_ 전진용 사진_ 최종업

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박종신 회장은 지난 2011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금의 (주)아이엘을 설립한 것이다. 사업 초기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박 회장의 탁월한 추진력과 성실함은 기업을 매년 성장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모든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는 힘들 수밖에

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공해야 저를 믿고 함께 한 직원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항상 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연 매출 2천억 눈앞...직원복지와 사회 환원 힘써

박 회장만의 기업 정신은 기업을 고속 성장시키는 힘이 됐다. 기업설립 15년이 된 지금 (주)아이엘은 연 매출 2천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동종분야 최상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항상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 경영 일선에 있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아이엘은 박 회장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수년 안에 업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할 정도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박 회장이 기업 성장과 함께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직원복지 향상과 사회 환원 등 ESG 경영이다.

“기업의 성장은 나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함께 한 직원들에게도 그 성과를 돌려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ESG 경영을 통해 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이런 기업 철학은 직원들에게 동종업계 대비 30% 이상 고임금을 보장하고 여러 사회 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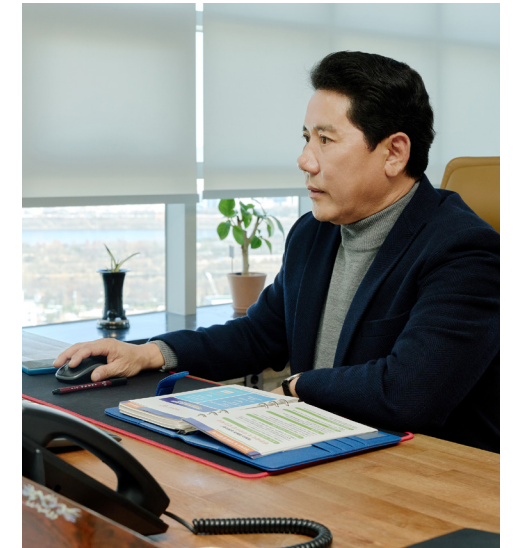
순천향과 건강과학CEO과정으로 인연... 순천향발전위원회 대표 위원장 맡아

박 회장은 지인의 소개로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CEO과정을 수료하면서 순천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이제는 순천향 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발전위원회 대표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CEO과정을 통해 많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기업인 선배님들을 비롯해 이사장님, 병원장님, 여러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순천향의 정신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리고 함께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향에 10년간 10억 기부 약속

박 회장은 그동안 순천향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건강과학CEO과정 총동문회 회장까지 맡으면서 동문들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순천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건강과학CEO과정 총 동문회장이자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고 쉽지 않은 자리지만 여러 동문 선배들의 도움으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향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힘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순천향에 1억원을 기부하고 12월에는 10년간 총 1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기업이 훌륭하게 성장해야 그 직원들과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순천향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많은 환자들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원 발전을 위한 어떤 분야에든 저의 기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 회장은 “이번 기부가 환자와 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동문회의 발전과 소통 활성화에도 좋은 쓰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SCH
ISSUE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정재 교수, 서울병원장 이성진 교수 취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및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정재
▲ 특임 중앙의료원장 서유성
▲ 전략기획본부장 박형기

이정재 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이 2026년 1월 1일자로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이정재 병원장에 이은 서울병원장에는 이성진 안과 교수가 취임했다.

또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신경외과 박형기 교수가 임명되었고, 순천향대 서울병원 진료부원장은 장재영 소화기내과 교수가 연구부원장에서 자리를 옮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병원장 이성진
▲ 진료부원장 장재영
▲ 연구부원장 김태형

다. 신임 연구부원장은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가 임명됐다. 이정재 신임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1985년 순천향대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과장, 외과계 진료부장, 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을 거쳤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순천향대서울병원 부원장을 거쳐,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초대 회장, 대한수혈대체의학회 회장, 대한자궁근종연구회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 상임이사, Asian Society of Patient Blood Management(아시아환자혈액관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성진 신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안과 전문의로, 1991년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안과학 교실 주임교수, 건강과학CEO과정 원장, 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실장, 진료 부원장, 중앙의료원 대외협력단장을 거쳤다.

학회 및 외부 활동에도 힘써왔다. 대한안과학회 기획이사, 홍보 미디어 국장을 거쳐, 현재는 감사를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

베트남 퀴는 시립병원에 용산구와 아모레퍼시픽과 협력하여 백내장 수술센터를 만들고, 매년 1~2회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는 용산구민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베트남 퀴논시 '시민상'을 수상했다. SCH

SCH
ISSUE

서울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사회·경제적 수준 낮을수록 입원 위험 크게 증가

도시보다 농·어촌 거주 시 입원 위험 1.4배 이상 높아
윤희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팀 연구 논문 발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역 환경에 따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위험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대도시 거주자보다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할 위험이 약 1.4배 이상 높았다.

윤희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9월 국제학술지 'BMJ Open Respiratory Research'에 발표한 'COPD 환자의 호흡기 관련 사망률 및 입원율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연관성 : 전국 코호트 연구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respiratory mortality and hospitalisations in COPD : a nationwide cohort study)'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희영 교수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1만 2,82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입원율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증가했으며, 농촌 및 중소도시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입원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



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입원이 더 많이 발생한 반면, 교육 수준과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높은 지역에서는 입원 위험이 낮았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소득 수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차이가 관찰



됐다. 특히 자영업 세대주와 함께 보험에 가입된 세대원은 자영업 세대주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2.4배 높았으며, 연구팀은 경제적 의존도와 의료 접근성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희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 환경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예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자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CH

SCH ISSUE

부천병원



서울 대형 병원 대신 선택한 ‘간이식 부녀’에 새 삶 선물



(좌측부터) 순천향대 부천병원 간담체외과 이옥주 교수, 고영화 씨·고혜진 씨 부녀, 정재홍 장기이식센터장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서울의 대형 병원 대신 본원을 선택한 부녀에게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건강한 새 삶을 선물했다. 수술의 주인공은 아버지 고영화(63) 씨와 장녀 고혜진(34) 씨다.

고영화 씨는 약 7년 전부터 간질환을 앓아 왔다. 반복되는 출혈과 측부혈관 발달로 여러 차례 지혈술을 받았고, 황달과 복수 등 간경화 증상도 악화하며 더는 간이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딸이 위험에 빠질까 봐, 간이식만큼은 완강히 반대했다. 하지만 효심 깊은 두 딸은 아버지 몰래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고, 혈액형·조직 적합

성·간 구조 등을 종합해 장녀 혜진 씨가 최종 기증자로 결정됐다.

부녀는 서울의 대형 병원을 포함해 여러 의료기관을 상담한 끝에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기이식센터를 선택했다. 친절한 상담, 진료·검사·수술 전 과정에서 이어진 꼼꼼한 설명, 의료진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진 체계가 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간이식 수술은 정재홍·이옥주 간담체외과 교수팀이 집도했다. 고 씨는 간경화로 인한 문맥압항진증이 심해 주요 혈관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 위험이 컸고, 중증 간질환으로 응고 기능도 불안정해 고난도 수술이 예상됐다. 그럼에도 이식팀은 정교한 혈관 문합으로 이식 간의 기능을 최적화했고, 부녀는 합병증 없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고 씨는 “의료진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여 주신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결정을 해준 딸들, 치료 과정 내내 함께 걱정해 준 아내와 동생 등 가족 모두가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홍·이옥주 간이식 팀은 “본원 간이식 팀은 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중환자실, 병동 등이 긴밀하게 연계된 다학제 협진 체계를 기반으로 최적의 간이식 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 병원을 믿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준 부녀에게 건강한 새 삶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 중증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수술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H ISSUE

부천병원



동료 구하고 쓰러진 영웅, 극심한 통증에서 해방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요추신경공협착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견뎌온 카자흐스탄 환자에게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줬다. 그 주인공은 ‘나흐마노비치 알렉세이(36·남)’이다. 알렉세이는 11개월 전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450kg에 달하는 대형 중장비 타이어가 동료를 덮치려는 순간 온몸으로 막아내며 동료의 생명을 구했다. 동료는 무사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허리에는 참기 힘든 통증이 시작됐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10곳이 넘는 병원을 찾아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통증은 더 악화해 삶의 의지를 잃어갈 만큼 깊은 좌절에 빠졌다.

그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의 진료였다. 임 교수는 ‘방중선 접근법을 통한 신경공경유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법은 근육 손상과 신경 견인을 최소화하면서 통증 부위의 신경을 안전하게 감압하는 수술법이다. 기존의 요추체간 유합술은 수술 후 허리 통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지만, 임 교수가 시행한 수술법은 대부분 환자가 2~3일 이내 통증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알렉세이 역시 수술 다음 날 스스로 걸을 만큼 빠르게 회복했다.

그에게 한국행이 두렵지 않았는지 묻자 “신기하게도 한 번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국제 의료서비스는 기대 이상이였다. 진료부터 통역까지 코디네이터가 세심하게 도와줬고, 의료진은 따뜻하게 배려해 마치 고국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편안했다”고 전했다. 알렉세이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면 주저 없이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추천하겠다”며 “한국 국민은 이렇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36세의 젊은 나이에도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던 알렉세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동료를 구하다 다친 사연을 듣고 반드시 건강한



수술 다음 날, 알렉세이(좌측)가 통증 없이 스스로 걸으며 임수빈 교수와 빠른 회복을 확인하고 있다.

일상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많은 나라에서는 퇴행성 척추질환 수술법이 보편화되지 않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가 많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환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척추 치료 기술을 알리고, ‘새 삶’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연구와 수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SCH ISSUE

천안병원

충남 유일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천안병원이 최근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충남에서 유일하게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다.

재관류치료는 급성 뇌경색 환자의 막힌 뇌혈관을 열어주는 치료다. 정맥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혈전을 용해 시키거나, 기구(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을 제거하는 혈

관내치료(혈전제거술) 같은 재관류 치료가 대표적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 2018년부터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시설 등 표준화된 진료 프로세스에 대한 심사를 실시·인증하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을 비롯해 2022년 9월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이후 지역 내 중증 뇌혈관질환 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진 체계를 기반으로 24시간 재관류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119구급대 핫라인 운영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 간호사 배치 △선별·검사·치료 프로토콜 표준화 적용 등을 통해 뇌혈관 치료 모든 과정에서 의료 질 향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SCH

SCH ISSUE

천안병원

비뇨의학과 김시현 교수, 로봇수술로 4개 장기(臟器) 동시 절제 성공



천안병원 비뇨의학과 김시현 교수가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로 방광암에서 여러 부위로 전이된 환자의 다장기 동시 절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환자는 70대 고령 방 모씨(여)로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김 교수가 시행한 로봇수술은 방광, 요관, 신장(좌측), 자궁 등 4개의 장기를 동시에 절제하고 복강 내 인공방광을 재건한 초고난도 사례다. 특히 절제한 장기를 환자의 질을 통해 빼냄으로써 복벽의 절개를 최소화하고 통증과 흉터, 감염 위험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례는 로봇수술의 안정성과 임상적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시현 교수는 “수술 환자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장기 절제와 인공방광 재건을 로봇을 활용해 완성도 있게 시행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로봇수술은 정밀한 절제와 봉합이 가능해 환자의 안전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병원이 시행한 방광 전절제술의 경우 로봇수술 시행 시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출혈과 수혈량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술 후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환자 만족도는 크게 높였다. SCH

SCH ISSUE

구미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2025년 Stroke 심포지엄 개최

경북 중·서부권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구미병원은 12월 18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2025년 Strok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구미병원은 지난 5월 경북 중·서부권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뇌혈관질환 진료 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연결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지역 의료진과의 지식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성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을 비롯해 구미보건소, 구미소방서와 경북 중서부권 지역(구미, 김천, 상주 등) 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책임전문의 여동규 교수의 개회사와 김성호 병원장의 인사말, 임명섭 구미보건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신경과 신대섭 교수

의 인적 네트워크 소개와 연수 강좌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경과 안병준 교수가 ‘허혈성 뇌졸중의 내과적 치료(Medical approach of ischemic stroke)’를, 신경외과 여동규 교수가 ‘허혈성 뇌졸중의 중재적·수술적 치료(Interventional/Surgical approach of ischemic stroke)’를 다뤘다.

이어진 2부에서는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신경외과 권태형 교수가 ‘출혈성 뇌졸중의 중재적 치료(Interventional approach of hemorrhagic stroke)’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경외과 김성호 병원장이 ‘출혈성 뇌졸중의 수술적 치료(Surgical approach of hemorrhagic stroke)’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호 병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발표해주신 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범사업 선정 기관으로서 환자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SCH

SCH ISSUE

구미병원

연말 온기 전한 순천향대 구미병원, 나눔바자회·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나눔바자회·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다. 12월 1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외래관 2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와 내원객, 교직원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전했다.

행사는 ▲외래간호팀·마취회복실 나눔 바자회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사진 인화 이벤트 등으로 마련됐다.

외래간호팀이 주최한 나눔 바자회에서는 교직원들이 기부한 가전제품, 생활용품, 의류, 유아용품, 건강식품 등 2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됐다.

또한 마취회복실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제작한 천연 스킨 에센스와 아로마 립밤을 판매하는 재능 나눔 바자회도 운영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인 ‘순천향 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에 전달됐다.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트리 포토존에서 교직원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해 즉석에서 인화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며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앞으로도 2층 로비 공간을 활용해 내원객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함을 전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SCH



겨울철 심·뇌혈관 건강, 생활 관리가 가장 강력한 예방법

보온·규칙적인 운동·식습관 관리로 심·뇌혈관 지켜야



겨울철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계절이다. 낮은 기온은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심·뇌혈관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 작은 관리 소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아침 시간대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과 맥박 상승하고 말초 동맥이 수축한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낮은 기온에서는 혈소판이 활성화되어 혈전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겨울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외출 시에는 외투를 충분히 갖춰 입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심·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식습관 관리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국물 섭취나 짠 음식들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승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한쪽 팔다리의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심한 어지럼증 등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대표적인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겨울철에는 심·뇌혈관 질환에 위험이 급증하므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은 평소 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 식습관 조절 등의 생활습관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 타임이 중요한 만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현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

슈퍼푸드 달걀, 콜레스테롤 걱정은 이제 그만

달걀 노른자, 신경기능과 간 대사에 중요한 역할



달걀은 ‘슈퍼푸드’라 불리며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다.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이지만, 동시에 “노른자는 정말 피해야 하나요?”, “달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버리지 않을까요?” 같은 오랜 오해와 질문 또한 많이 받는 식품이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보면, 달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사실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걀은 한 개(약 50g)에 75kcal밖에 안 되면서도 단백질 8g, 지방 5g(그중 약3g 정도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담고 있는 완전 단백질이다. 콜레스테롤이 1개에 185mg 정도 들어있긴 하지만, 비타민 B군(B2, B12), 비오틴은 물론이고 신경계와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까지 가득 들어있는 것이 달걀이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집중되어있는 영양소들은 신경기능과 간 대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식사량이 적어지기 쉬운 노인이나 회복 중인 환자들, 성장기 아이들, 체중증가와 근력 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달걀이 ‘조심해야 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콜레스테롤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달걀을 먹는다

고 해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만 심장질환,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진단 받았거나, 동맥경화, 유전성 고지혈증, LDL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달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따지기보다 식단 전체에서의 포화지방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어떤 요리법으로 달걀을 먹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윤수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양팀장은 “달걀을 기름에 튀기거나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같이 먹으면 열량과 포화지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란같이 삶거나 가볍게 조리하면 부담없이 단백질을 보충할수 있다”며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균형된 영양을 섭취할수 있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양팀장



‘악력’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낮다

한국인 3만5천여 명 대상 국내 최초 분석
‘악력’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병률
남성 36%, 여성 33% 감소

악력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 🔍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성범·송지윤 교수)이 한국인 3만5천여 명의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아귀 힘을 의미하는 ‘악력’이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악력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로, 심혈관질환 예방 전략과 건강관리 지침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 성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협업했으며, 전국 38개 건강검진센터에서 수행된 기초·추적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KoGES)를 활용했다. 40세 이상 성인 약 7만 명을 평균 4.1년간 관찰했으며, 이 가운데 3만5천600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됐다. 이들 중 526명이 추적조사 기간에 새롭게 심혈관질환을 진단받았다.

연구팀은 체격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절대 악력을 체질량지수로 나눈 ‘상대 악력’을 사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악력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성은 악력 상위 25% 집단이 하위 25% 대비 발생률이 36% 낮았고, 여성은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운동량, 음주, 흡연 등 주요 생활 습관 요인을 보정한 이후에도 이 같은 양상은 유지됐다.

이성범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악력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한 첫 연구로, 높은 신뢰도와 의의가 있다”며 “근감소증은 골다공증이나 비만에 비해 질환으로서의 인식이 낮은 편이지만, 꾸준한 근력운동과 주기적 악력 측정이 각종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송지윤 교수는 “악력은 특별한 장비나 채혈 없이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혈액·소변 검사 기반의 정밀 평가가 어려운 제3세계 국가에서도 심혈관질환 위험군을 선별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악력을 활용한 신규 심혈관질환 발생 예측: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KoGES) 코호트 기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노년의학·노년학회지(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IF 3.8)’ 2025년 12월호에 게재됐다. 



이성범·송지윤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



우리아이 성장 방해하는 소아 코골이, ‘크면 괜찮아지는 문제’ 아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성장과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인 코골이와 달리, 소아 코골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이다. 성인에서도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에게 지속적이거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은 잠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성장과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아 코골이의 원인

코골이는 수면 중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거나 떨릴 때 발생한다. 아이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코골이의 원인으로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과체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아는 구조적으로 성인에 비해 기도가 좁은데, 성장 과정에서 림프조직인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면 기도가 더 좁아져 코골이는 물론 수면무호흡으로 이어지기 쉽다.

소아의 수면무호흡, 왜 더 위험할까?

성인의 수면무호흡증은 증상이 있으면서 보통 한 시간에 5회 이상 무호흡·저호흡이 나타나면 진단한다. 반면 소아에서는 한 시간에 1회 이상만 나타나도 비정상으로 보고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아이에게는 수면 중 산소 공급 저하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성장기 아이들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잠으로 보내며, 이 시간 동안 뇌와 몸은 회복과 성장을 진행한다. 이 중요한 시간에 무호흡이 반복되어 잠이 계속 끊기면,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성장과 인지·정서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편도·아데노이드 비대, 수술 효과 뛰어난 대표 원인

소아 코골이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이다. 아이가 심한 코골이와 함께 무호흡이 있고,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성장이나 발달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아데노이드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편도는 그

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되면서 목 둘레가 커지면서 증상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성장기 동안에는 계속 수면의 질이 떨어져 성장과 발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1년에 3회 이상 열을 동반한 편도선염이 반복되었다면 이런 편도선염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원인이 분명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아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편도절제술과 피타(PITA) 수술

편도의 크기는 대부분 입을 벌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데노이드는 코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코 내시경이나 측면 X-ray 검사로 크기를 평가한다.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커서 기도를 막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는 비대한 조직을 줄여 주는 수술이다. 대표적인 편도의 수술법이 편도(전)절제술과 피타(PITA) 수술이다.

편도절제술은 편도와 이를 둘러싼 캡슐(피막)까지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고, 피타수술은 캡슐은 남기고 편도 조직만 일부를 줄여 주는 수술법이다. 코골이에 더해 편도선염이 자주 생기는 아이는 편도 조직을 남기지 않는 편도절제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 문제인 경우에는 피타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이의 코골이는 “크면 저절로 좋아지겠지”라기보다, “언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신호”에 가깝다. 심한 코골이, 수면 중 숨이 멎는 듯한 모습,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보이거나 성장·학습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시기를 잡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차현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당뇨병의 치료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당뇨병의 치료제



GLP-1 receptor agonist(GLP-1RA)는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제로, 혈당이 상승했을 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incretin effect 기전을 통해 우수한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 왔다. 이러한 기전에 따른 체중 감소 효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면서,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관련 처방과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GLP-1 계열 치료제에는 liraglutide, semaglutide, tirzepatide가 있다. Liraglutide는 Saxenda®라는 제품명으로 비만 치료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1회 피하 투여하는 제제로 0.6 mg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량하여 최대 3.0 mg/day까지 사용한다. Semaglutide의 비만 치료 적응증으로는 Wegovy®(Novo Nordisk)가 사용되며, 주 1회 피하 투여하는 제제로 0.25 mg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량하고 최종 유지 용량은 주 1회 2.4 mg이다. Tirzepatide(Mounjaro®, Eli Lilly)는 GLP-1과 GIP receptor를 동시에 자극하는 dual agonist로, 주 1회 피하 투여하며 2.5 mg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량한다. 이들 치료제는 혈당 개선과 함께 의미 있는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 비만 치료 영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GLP-1 계열 치료제의 공통된 특징은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감소시키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섭취량을 줄이는 기전을 가진다. 최근 발표된 SURMOUNT-4 연구에서는 semaglutide를 이용해 체중 감량을 달성한 환자들에서 치료를 유지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지속된 반면, 치료를 중단한 군에서는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GLP-1 계열 치료제가 단기 체중 감량뿐 아니라 감량 이후 유지 단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치료를 중단할 경우 효과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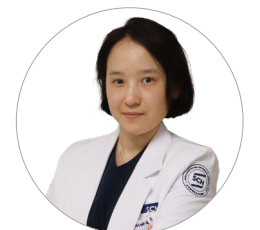
GLP-1RA나 tirzepatide를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치료제가 체중 관리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식욕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고열량 식사나 잦은 폭식이 지속될 경우 기대한 만큼의 체중 감소를 얻기 어렵다. 실제 임상에서는 생활습관 변화 없이 치료제에만 의존할 경우 체중 감량 효과가 제한되거나 일정 시점 이후 정체되는 경우도 흔히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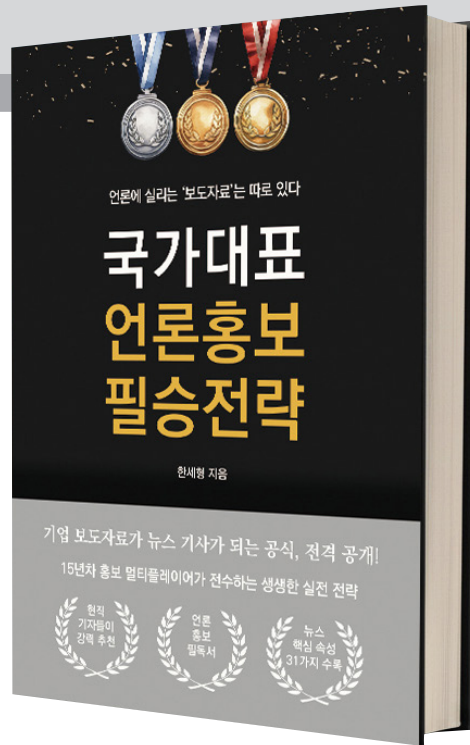
부작용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복부 불편감, 설사 등과 같은 위장관 증상으로, 대부분 치료 초기나 증량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용량과 증량 속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점진적인 증량과 경과 관찰이 중요하다. 또한 과거 췌장염 병력이 있거나 중증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GLP-1 계열 치료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rcinoma) 및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type 2(MEN2)와의 연관성은 주로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까지 인간에서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체질량지수(BMI)가 매우 높은 초고도 비만 환자군에서는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한 대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GLP-1 계열 치료제 외에 bariatric surgery가 하나의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는 체중 감소뿐 아니라 당뇨병 호전과 심혈관 위험 감소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이점을 보인다는 근거가 축적되어 있다.

결국 GLP-1 계열 치료제는 비만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구분할수록, 이들 치료제는 임상 현장에서 보다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권소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병원·기업·기관을 위한 언론홍보 실전 전략서 「국가대표 언론홍보 필승전략」

현직 기자들이 강력 추천한 ‘언론홍보 실전 가이드북’

언론홍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뉴스 플랫폼은 다변화됐고, 뉴스 생산과 소비의 속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그러나 많은 조직의 보도자료는 여전히 ‘홍보용 문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어떤 보도자료는 기사로 채택되고, 어떤 자료는 기자의 메일함에서 열리지도 못한 채 사라질까. 「국가대표 언론홍보 필승전략: 언론에 실리는 ‘보도자료’는 따로 있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서 출발한 실전형 언론홍보 전략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홍보팀 한세형 언론담당이 집필한 이 책은 ‘사용자 중심의 실시간 맞춤 뉴스 제공 기

술’ 특허 등록을 비롯해, 15년간 언론홍보 현장에서 수만 건의 보도 성과를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핵심 위주로 담아냈다.

특히 ‘좋은 보도자료 선발 기준과 뉴스 기사가 되는 핵심 속성 31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더해 저자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홍보 멀티플레이어’ 개념을 제시하며, 언론홍보가 특정 부서의 업무를 넘어 조직 전체의 핵심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언론홍보 이론을 ‘국가대표 경기’에 비유해 풀어낸 구성이다.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 심판, 올림픽 무대, 메달 경쟁 등의 은유를 통해 뉴스가 선택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언론홍보의 핵심 개념과 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언론홍보 경험이 없는 독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이유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언론의 속성 이해부터 보도자료 작성·배포 실전 기술, 기자 관계 관리와 위기 대응, 조직 차원의 언론홍보 활성화 전략까지를 단계적으로 담았다.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강점이며, AI 시대 보도자료 작성 준칙과 가짜뉴스 대응 전략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도 함께 반영했다.

현직 기자들의 추천사 역시 이 책의 실무 활용도를 잘 보여준다. 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 기자들은 “기자가 어떤 보도자료에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실전서”, “15년간 축적한 언론홍보 노하우를 핵심만 정리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대표 언론홍보 필승전략」은 홍보 실무자는 물론, 병원·기업·기관의 관리자와 구성원, 스타트업과 1인 기업 대표까지 폭넓게 참고할 수 있는 언론홍보 실전서다. 뉴스가 선택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직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 [SCS](#)



저자_한세형(순천향대 부천병원 홍보팀 언론담당)

전국 대학병원 최초

천안병원,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 운용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

난소암

‘헬시온’ 특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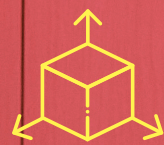
기존 치료시간 대비
4배 단축



소음은 **최소화**



치료공간은
최대화



환자 몸에 **마킹없이**
치료 가능



순천향대천안병원 방사선암치료센터 : 041-570-3550

‘K-STAR 비자트랙’ 충남 유일 선정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K-STAR 비자트랙’ 참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며, 충청남도 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다. 법무부는 2025년 11월 19일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을 발표했으며, 12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선정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K-STAR 비자트랙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3년 후 영주(F-5) 자격, 나아가 특별귀화까지 연계하는 고급 인재 정주 지원 제도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개편을 통해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참여 및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됐다. 순천향대는 K-STAR 비자트랙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연구 참여, 산학협력 연계, 글로벌 취업 및 정주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SCH 의료과학 챔피언 청소년 캠프’ 성료

순천향대학교가 아산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SCH 의료과학 챔피언 청소년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아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중·고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SCH 의료과학 챔피언 청소년 캠프’는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 교수진과 대학원생 멘토가 참여해, 청소년들이 실제 대학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의료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캠프는 전공별 체험형 의료과학 캠프, 청소년의 의료과학 멘토링 프로그램, 의료과학 올림피아드 등 3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전공별 체험형 의료과학 캠프는 초·중·고 수준별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인체 구조 이해, DNA 추출, 건강 빅데이터 분석, 생체신호 측정 등 다양한 의료과학 실험을 직접 경험했다.

2025 동계 열린산학연포럼 통합 컨퍼런스

2025 동계 열린 산학연포럼 통합 컨퍼런스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마루나비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한국연구재단 중앙 RISE 센터와 열린산학연포럼,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순천향대학교 RISE 사업단, 한서대학교 RISE 사업단, 수도권 SCOUT 일반대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LINC 사업을 통해 축적된 대학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환 국면에서 대학의 산학연 협력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관계자와 창업·산학협력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교육, 창업,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2025 충남 학생창업경진대회’ 성료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은 12월 29일 천안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충청권 대학 간 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발굴하기 위한 ‘2025 충남 학생창업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충청권 일 반대 SCOUT 사업단이 주최하고 순천향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실전 창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등 충남권 4개 대학에서 선발된 우수 창업동아리 8개 팀이 참가해 기술·AI·로봇·디지털 콘텐츠 등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심사 결과, 웨어러블 전자 디스플레이 ‘루미닉스’를 선보인 순천향대 ‘빛나온’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아이템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의료질 평가 1등급 획득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10회 연속 1등급이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370여개 대상 기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의료질 평가는 환자

들의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총 6개 영역 54개 지표이다.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의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했고, 교육수련 영역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서울호흡안심병원, 협력병원 체결식 및 간담회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서울호흡안심병원과 협력병원 체결식을 진행하고, 진료연계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양기 순천향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임소연 서울호흡안심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진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형외과 외래간호 세미나 성료

정형외과는 12월 12일 이현옥홀에서 정형외과 외래간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래 진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전략, 외래 진료의 양적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에 대한 강의 등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국제공조(주) 문한경 회장, 병원발전기금 기부 약정

디지털국제공조(주) 문한경 회장이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약정했다. 병원발전기금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예성 프로골퍼, 중증소아 환아를 위한 '사랑의 버디기금' 기부전달식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전예성 프로가 1월 6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찾아 중증소아 환아를 위해 1,445만원을 기부했다. 전예성 프로는 한 시즌 동안 버디를 기록한 만큼 '사랑의 버디기금'을 모아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1,224만원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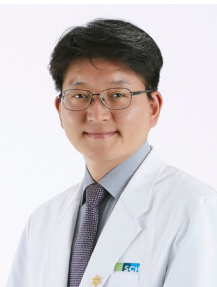


본관 내과계 중환자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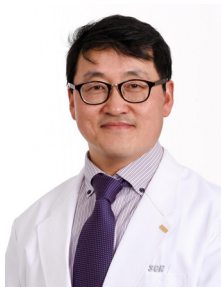
부천병원이 12월 22일 본관 내과계 중환자실을 신설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했다. 신설된 중환자실은 중환자 병상 19병상과 양·음압 격리병상 6병상을 포함해 총 25병상 규모로 구축됐다. 고성능 헤파필터(HEPA)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감염관리 수준을 높였으며, 병상 간 간격을 확대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했다. 특히 중증 격리 환자의 치료 효율과 섬망 예방을 고려해 자연 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격리실 사이마다 간호사 보조 스테이션을 설치해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환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중환자실 신설로 부천병원 중환자 병상은 총 108병상으로 확대됐다.

이종대 이비인후과 교수,
‘대한안면신경학회 신임 회장’ 취임

이종대 교수가 ‘대한안면신경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다. 2019년에 창립된 대한안면신경학회는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들이 모여 안면신경 질환을 연구하는 국내 대표적인 다학제 학회다. 이 회장은 “안면신경학회가 아직 신생 학회지만, 임기 동안 확고한 학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안면마비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채원석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대한외래마취학회 신임 회장’ 취임

채원석 교수가 ‘대한외래마취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외래마취학회는 외래마취의 발전을 목표로 교육·연구·학술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로,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채 회장은 “병상 이용률 증가와 병원 감염률 감소, 치료비 마취 등 외래마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과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외래 환자 마취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희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 취임

김철희 교수가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68년 창립 이래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뇨병 전문 학술단체다. 김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비만 증가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회 이사진을 비롯한 임원, 회원들과 협력해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선도, ‘당뇨병 연구와 치료에 글로벌 표준 제시’라는 미션·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운 교수가 ‘대한고압의학회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고압의학회는 고압산소치료 기술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 교육, 연구, 보험 급여 확대 논의, 정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국내 고압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유일한 전문 학술단체다. 김 이사장은 “고압의학은 응급의학, 중환자치료, 재활, 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분야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전문 영역”이라며 “학회의 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고압산소치료의 표준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병원 최초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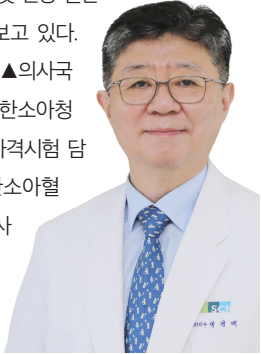
천안병원이 전국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암 전용 방사선 암치료기를 운영한다. 병원은 현재 세계적 수준의 방사선 암치료기 3대를 가동 중이며, 이중 미국 배리안 사의 ‘헬시온’을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치료 전용기로 운영한다. 헬시온은 고해상도 영상 기능을 갖춘 환자 맞춤형 암 치료기로 종양과 주변 장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치료 정확도는 크게 높인다. 또 기존보다 치료 속도가 최대 4배까지 빠르며, 소음은 적고 내부 공간이 넓어 환자에게 보다 편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헬시온에는 특히 신의료기술인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 시스템이 함께 도입돼 기존과 다르게 환자의 몸에 별도의 마킹(표식)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여성암 치료 중 발생하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여성 방사선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응급의학과 류정민 교수,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 취임

응급의학과 류정민 교수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2년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의료의 질적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4년 창립했다. 류정민 교수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울산대에서 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천안병원에는 지난해 4월 부임해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보호위원장,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회장, 국회어린이안전포럼 돌연사예방분과위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박경배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 취임

소아청소년과 박경배 교수가 제75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945년 창립해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한 전통과 역사가 깊은 학회다. 국내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학문적 발전도 선도하고 있다. 박경배 교수는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소아혈액종양학을 전공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천안병원에서 지역 혈액종양 및 신장 질환 소아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박 교수는 이 밖에도 ▲의사국가고시의 위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전문의자격시험 담당 고시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교육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경외과 박종현 교수, 충청권 최초
‘뇌동맥류 웹 치료’ 교육자 자격 획득

신경외과 박종현 교수가 대전·충청 지역 최초로 뇌동맥류 치료의 신의료기술인 ‘웹 치료 교육자 자격증(프록토십.PROCTORSHIP)’을 획득했다. 웹 치료는 니티놀 와이어로 촘촘하게 엮은 금속망을 공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속에 넣어 채움으로써 혈류를 차단해 파열위험을 제거해 주는 시술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웹 치료가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 뇌동맥류 치료로 시행된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을 대체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충청권 최초로 뇌동맥류 환자들에게 웹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현재까지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시술을 이어오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정활림 교수,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소아청소년과 정활림 교수가 ‘2025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서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 전문의로 1형 당뇨병 아동 및 청소년 진료에 힘써왔다. 특히 장기간 혈당 관리 어려움을 겪는 아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당뇨병으로 인해 심리적 고립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언해왔다. 충청남도는 소아당뇨 진료에 모범이 되고 환자 보호자 교육, 학교 및 지역 보건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 교수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윤석만 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윤석만 센터장이 ‘제32차 심뇌혈관질환센터 전국 회의’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심뇌혈관 질환 환자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윤 센터장은 권역심뇌혈관센터장으로서 의정사태로 인한 전공의 부재 기간에도 24시간 365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5월 개원한 순천향대천안병원 새병원에서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영술·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하이브리드수술실, 혈관조영기 도입 등 최적화된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제 24대 김성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취임

구미병원 제24대 병원장에 신 경외과 김성호 교수가 취임했 다. 11월 3일 오후 향설대강당에 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교일 학 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 성 중앙의료원장, 주요 보직자 와 교직원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성호 병원장은 1999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를 취득했다. 이후 신경외과에서 17년간 근무하며 중환자실장, 외과계 진료부장, 전라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 병원 발전에 기여했으며, 순천향 의료봉사단 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의료계 봉사에도 힘써왔다. 김성호 병원장은 구미병원 현장 운영과 조직문화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실 무형 리더’로 평가받으며, 이날 취임식에서도 교직원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김성호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 적 제도와 소통중심의 문화를 도입해 병원의 혁신을 이끌겠다”며 “의료진과 교직 원이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이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며 “모든 교직원 이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결핵·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구미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결핵 적 정성 평가’,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결 핵 적정성 평가’는 2024년 1~6 월 결핵 환자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시행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 결핵균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등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96.6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 우수 1등급을 유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 까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및 결과를 종합 평가 한 결과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입원경 험 환자비율 등 7개 지표로 평가됐다. 구미병원은 종합점수 전체평균(70.2점)을 크게 상회하는 90.2점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달성했다. 김성호 병원 장은 “결핵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이 번 평가결과는 우리 병원의 높은 진료수준을 입증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 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최상의 의료의 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제22회 QI 경진대회 성료

구미병원은 11월 19일 본원 향 설대강당에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중심의 진료환경 강화를 위해 제22회 QI경진대회 (Quality Improvement)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김성호 병원 장을 비롯하여 이광수 QI 실장(신경외과 교수), 김우석 전라기획실장(외과 교수), 임현숙 간호부장, 김석락 사무처장, 교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구연발표 7팀, 포스터 전시 10팀 총 17개팀이 참여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진 단검사의학팀의 ‘햇빛을 활용한 쉬운 검색! 똑똑한 일!’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31병 동의 ‘표준화된 보고 방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의사소통 개선 활동’, 장려상은 기병 동의 ‘급성뇌경색 치료과정 교육 제공을 향상 활동’이 수상했다. 김성호 병원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실천해 준 모 든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작은 개선이 큰 변화를 만들 듯, 앞으로도 우리 병 원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말 맞아 환자·교직원을 위한 겨울 힐링콘서트 개최

구미병원은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 본원 외래관 1층 로비에 서 환자,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 으로 겨울 힐링콘서트를 개최 했다. 이번 공연은 구미그린필 오케스트라, 구미크리스찬 오 케스트라가 무대를 꾸몄으며, 구미미래포럼과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 는 크리스마스과 연말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환자, 보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민중독, 우리들의 꿈 등 총 11곡의 다채로운 연주가 이어졌다. 특히 ‘벨스 오브 크리스마스’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은 합동 연주는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호 병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연주회가 교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연말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 다”고 말했다.



SCH NETWORK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 피우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BUcheon

SEOUL

ASAN

CHEONAN

GUMI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